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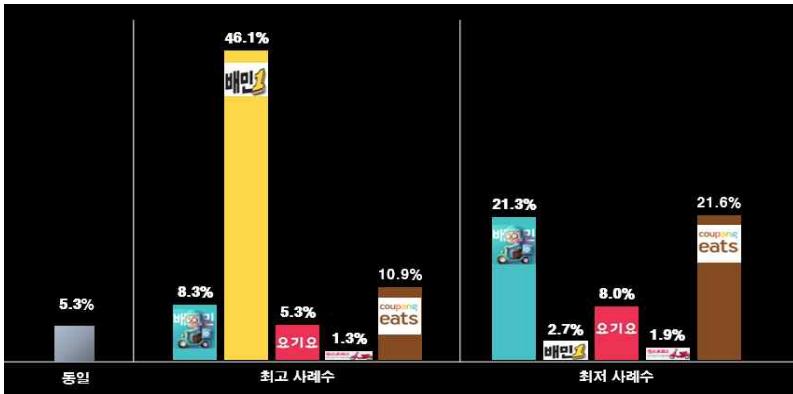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일시	2023년 2월 28일(화)
	담당부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02-774-4060

3km 미만 배달 거리에서 대부분 최빈 배달비 3,000원, 배민 1은 최빈 배달비 4천원대로 높아 배달앱의 배달팁 산정 방식 변경에 따라 배달비 변동 주시해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 물가감시센터는 배달서비스 시장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투명한 배달비 산정 환경 마련을 위한 소비자 감시 활동 차원에서 배달앱 별 분석, 치킨, 한식(점담 중심) 업종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를 배달 주문이 몰리는 주말 점심 12시~3시(2월 11일)와 배달 주문이 적은 시간대인 평일 오후 3시~6시(2월 7일) 총 2회에 걸쳐 조사하였다.1)

■ 배달거리 3km 미만, 묶음배달 서비스 최빈 배달비 대부분 3,000원, 최고 배달비는 7,000원

<표 1. 배달앱 및 배달서비스에 따른 배달비 비교2)>



소비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지불하는 배달비를 비교한 결과, 최고 배달비가 가장 많은 앱은 본 협의회의 이전 조사 결과 추이와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즉 배민1(배달의 민족 단건, 이

1) 본 조사는 서울 전 지역 25개 구 각 2개 동의 특정 주소지를 선정,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주말(2월 11일) 점심시간과 소비자 이용이 비교적 적은 평일(2월 7일) 오후에 최소 주문액으로 주문 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에 대해 조사함.
1월 조사 업종은 분석, 치킨, 한식(점담 중심)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자세한 조사 방법은 별첨 자료에 첨부함.
2) 최고, 최저 배달비는 3개 이상 배달비 중 top, bottom의 가격이 각 1개씩 있을 경우의 배달앱만 표시함.

하 배민1)이 4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쿠팡이츠 10.9%, 배달의 민족 8.3% 순이었다. 최저배달비가 많았던 앱은 지난 12월에는 배달의 민족(묶음)이 더 높았으나 이번 달에는 쿠팡이츠의 최저 배달비 사례가 늘어 21.6%, 배달의 민족(묶음) 21.3%으로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배달비를 배달 거리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앱에서 3km 미만 거리의 최빈값이 3,000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1은 2km 미만 배달 거리에서 4,000원, 2km 이상~3km 미만 배달 거리는 4,770원으로 가장 높았다. 3km 이상~4km 미만 배달 거리에서는 쿠팡이츠의 최빈 배달비가 6,000원으로 다른 앱에 비해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3km 이상~4km 미만 배달 거리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배민1의 배달비 최빈값이 다른 배달앱들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묶음 배달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묶음)과 요기요는 최빈 배달비와 최고 배달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배달 거리에 따른 배달앱, 배달서비스에 따른 배달비 현황>

(단위 : 원)

거리 구간	배달의 민족 (묶음)		배민1 (배달의 민족 단건)		요기요 (요기요 익스프레스)		쿠팡이츠	
	최빈	최고	최빈	최고	최빈	최고	최빈	최고
2km 미만	3,000	5,500	4,000	6,000	3,000 (2,900)	6,000 (3,400)	3,000	4,000
2km~3km 미만	3,000	7,000	4,770	6,540	3,000 (3,900)	7,000 (4,400)	3,000	4,000
3km~4km 미만	3,500/5,000	8,000	5,310	7,310	4,000 (4,400)	7,000 (4,400)	6,000	7,000

* 주말 점심시간 기준

■ 12월 대비 2월 동일 업체(분식, 치킨, 한식(점담 중심)) 배달비 비교 결과, 84.0% 업체 동일, 11.4% 업체에서 인상

<표 3. 12월 대비 2월, 동일 업체 배달비 변동 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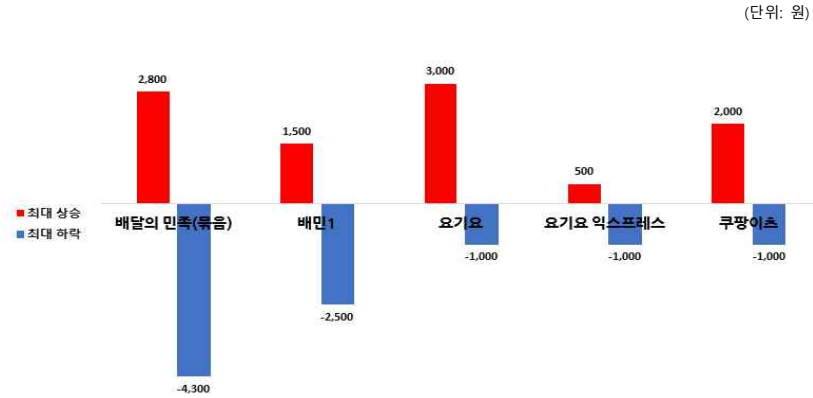
	배달의 민족(묶음)	배민1 (배달의 민족 단건)	요기요	요기요 익스프레스	쿠팡이츠	평균
상승한 업체	14.9%	12.1%	14.2%	5.6%	10.4%	11.4%
하락한 업체	4.0%	5.3%	2.8%	5.6%	5.0%	4.5%
동일한 업체	81.1%	82.6%	83.0%	88.9%	84.6%	84.0%

동일 업체의 주말 점심시간 배달비를 12월 대비 2월 비교한 결과, 평균 11.4%의 업체에서 배달비가 인상되었고, 평균 4.5%의 업체에서는 배달비가 하락하였다. 배달비 인상이 가장 많았던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묶음)으로 14.9% 업체의 배달비가 상승하였고 이들 업체에서

인상한 평균 배달비는 906원이었다. 요기요에서 배달비가 상승한 곳은 14.2%였으며 평균 912원을 높였다. 배민1은 12월 대비 2월 동일 업체 중 12.1%가 배달비를 인상하였고 평균 617원을 높였다. 쿠팡이츠는 10.4% 업체에서 배달비를 인상, 평균 773원을 높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달의 민족(묶음)은 2월부터 지역별(행정동)에서 거리별로 배달팁 산정 방식을 변경, 음식업체에서 배달팁 산정 방식을 선택하도록 공지하였다. 본 협의회의 2월 조사에서는 일부 프랜차이즈점에서 이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배달비 변경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표 4. 12월 대비 2월, 동일 업체의 배달비 등락 결과>



* 주말 점심시간 기준

**일부 배달앱의 배달팁 산정 100m 단위별 최소 100원씩 배달비 변동 가능
배달비 상승효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지속적인 감시 필요**

12월 조사했던 업체 중 2월 조사와 중복된 업체들을 분석해본 결과, 평균 11.4% 업체에서 배달비를 인상하였고, 4.5% 업체에서는 배달비를 인하하여 전체 업체 중 약 15.9% 업체의 배달비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 민족은 2월부터 기존의 지역별 배달팁 산정 방식 외에 거리별 배달팁 산정 방식을 도입, 음식업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공지하였다. 지역별로 배달비를 산정하던 현재 방식과 달리 거리별로 배달비를 산정한다면, 같은 행정동 내에 있더라도 직선거리가 먼 경우 배달팁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배달팁 산정 기준 거리(100m 단위 최소 100원부터 500m당 최대 1,500원까지)가 짧아질수록 업체 측에서 단위당 배달팁을 조금만 변경하더라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본 조사에서 음식업체에서 배달팁 산정 방식 변경과 더불어 기본 배달비도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 한동안 배달 요금이 변동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 물가감시센터는 각 업종 및 프랜차이즈에 따라 배달비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끝.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